

합평농협, 자금문제 지적 감사 해임 논란

농협측, "각종 유언비어 퍼뜨려 명예 실추" 농협정관 따라 처리
A감사, "정당한 지적 해임처분 부당" 조합장 등 검찰 고발 맞서

합평농협은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와 농림식품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감사인 A씨에 대해 농협정관에 따라 해임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감사를 하면 조합이 망한다", "감사에서 환수 통보된 3억4000여만원의 배당금을 임원들이 3년에 걸쳐 내놓기로 했다"는 등 사

실과 다른 각종 유언비어가 조합원들 사이에 떠돌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합평농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의원 임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A감사 해임 건과 조합원 제명의 건에 대해 대의원 68명중 66명이 참석해 정관에 따라 3분의2 찬성으로 해임과 제명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평농협은 "조합원을 대표하고 조합의 원활유 역할을 해야할 A감사가 이미 농협중앙회 감사까지 받고 처벌까지 끝난 '고

정자산 처분 이익금 사용'에 대해 계속해 타 기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각종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해임요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환수와 관련, 사실과 다른 문자메시지가 대의원들에게 발송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고정자산을 처분한 이익금 11억 3200만원을 적립하지 않고 직입금 상여금과 배당금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며 정당한 지적을 한 자신의 해임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감사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립을 해

야할 자본이 목적과 다르게 잘못 지급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며 조합장과 전무, 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당지급된 3억1200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라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평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미 배당으로 지급된 3억1200여만원에 대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자구책으로 3년 동안 내부유보가 가능한 유동순실보전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기로 임원들과 합의한 상태"다 "조만간 이런 계획을 농협중앙회에 자구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합평=황은학 기자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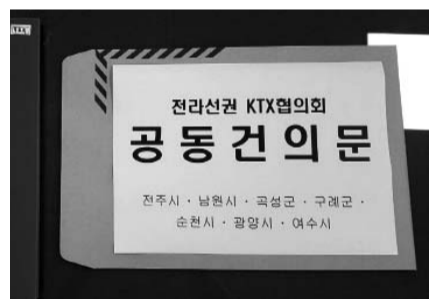
지난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복부사무소와 한국산악사진가협회 관계자들이 지리산 탐방안내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복부사무소 제공>

지리산 탐방 안내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협약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복부사무소(소장 조정현)와 한국산악사진가협회(이사장 이윤승)가 지난 13일 복부사무소에서 지리산 탐방안내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탐방안내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탐방안내소·지리산나눔협력센터 사진전시회 개최, 자연자원 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약속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라선권 7개 시장·군수 'KTX협의회' 국조실 등에 건의문 "전라선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해야"

전라선권 7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전라선권 KTX협의회'는 152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라선권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동건의문(사진)을 지난 12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경전선(광양-진주)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및 준공(KTX운영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년도에 출범한 '전라선권 KTX협의회'는 전남 여수시를 비롯해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등 7개 시장·군수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에 앞서 강원·충청·호남 등 8개 시·도는 국가 균형발전



에 이바지 하고자 기존의 경부축 중심 국토정책에 대응해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관광·산업축인 '강호축' 개발의 실현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제출된 공동건의문 내용에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사업이 전남도와 전북도의 핵심 사업에 포함될 바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주력 읍·면·동 순회 교육 등 연말까지 홍보활동 강화

정읍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정착을 위한 읍·면·동 순회교육을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알려 고충민원 해소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수성동을 시작으로 하는 순차적으로 23개 읍·면·동지역을 돌며 연말까지 순회교육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이 담긴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해 교육 교재로 활용한다.
또 포스터 300부를 제작해 23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배부해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가 활성화되어 정읍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는 정읍지역 납부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과 세무부서의 견조회, 과세자료 열람,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엑스포 성료 초·중·고생 등 관람객 8만7000여명 다녀가 군, 우편집배용 e-모빌리티 보급 사업 협약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영광군에서 열린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엑스포(이하 영광엑스포)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전남에서 개최하는 첫 산업박람회인 영광엑스포에는 e-모빌리티산업 국내외 전문가와 바이어뿐만 아니라 초·중·고 대학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 약 8만7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영광이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에서 미래형 e-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엑스포는 18개국 120개사(국내 97개사, 해외 23개사)가 참가해 기업 제품PR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산업부·국토부·환경부가 합동으로 e-모빌리티 보급, 안전기준,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갖는 등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라톤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집배용 e-모빌리티 보급 시범사업을 영광군과 함께하기로 업무협약도 맺었다. 특히 동남아 등 16개국 23개사의 해외바이어들이 엑스포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대공중합상

사 등 42개 기업과 28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또 엑스포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한 타 지역에 소재한 e-모빌리티 관련 4개 기업이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적극적인 입주 의향을 보이면서 향후 투자 유치 성사여부도 주목된다.
엑스포장에서는 관람객이 실내·외 체험장에서 직접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농업용전동차, 초소형 전기차까지 e-모빌리티 전 제품을 직접 타보고 구입할 수 있는 종합마케팅장으로 운영해 참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와함께 최신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와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학생과 교수수가 함께 참여하는 드론 경주대회 및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전, 로봇 케이팝공연, 아이돌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려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광=이준용 기자 jlye@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 청년분과위원 10명 위촉

익산시는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위원은 모두 10명이다.
청년분과위원은 청년문제 정책사업 발굴과 예산과정 참여를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에 일조하게 된다.
이들은 익산지역내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총회·분과위원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시민

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다.
시는 청년분과 제안사업에 인구유입과 관련된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층 인구유입 등 익산시 인구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5개 분과, 정원 6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7건의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일제 점검

고창군은 오는 22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학교 19개소, 일반음식점 16개소, 집단급식소 8개소, 골프장 등 7개소 등 총 49개소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준수 여부와 품목별 배출방법, 배출유량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발생억제·처리실적 보고서와 관리대장 작성보존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전용용기 관리실태 등 운영진반에 대한 실태를 살핀다.
고창군 관계자는 "꼼꼼한 지도 점검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